

2016년 미국 Shasta College SummerProgram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이혜*	학번	
파견국가	미국	파견도시	캘리포니아 Redding
파견대학	Shasta College	기간	2016.06.26. ~ 07.16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대학이 도심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둘러볼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쇼핑몰, 마트, 아울렛 등은 다 있어서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종종 나갈 수 있었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. 하지만 교통이 편리한 편이 아니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이러한 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또 도심이 아니어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</p> <p>대학의 규모 및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. 캠퍼스가 넓은 편이고 분위기가 좋아서 가볍게 걷기 좋았습니다. 또 다양한 시설들이 많아서 좋았고,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간단한 요리 등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.</p>
Hospitality Class	<p>이 수업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수업입니다. 교수님께서 관련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많으셨고,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굉장히 유익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</p> <p>수업방법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답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것들을 컴퓨터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. 학생이 참여를 해야 하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.</p> <p>이 수업에서 아쉬웠던 점은 교수님께서 저희의 발음을 못 알아들으셨던 점입니다.</p>
Computer Class	<p>이 수업에서는 엑셀과 직접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. 처음 접해보는 것들이지만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데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그것들을 컴퓨터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.</p>

	<p>수업내용도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지만 교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더욱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입니다. 수업 시간 외에도 다양한 문화나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많은 것들 배울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조금 서툴게 말해도 이해해주시려고 노력하고 항상 칭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분이라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.</p> <p>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이해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,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좋았습니다.</p>
필드트립	<p>필드트립 때는 대학 근처에 유명한 곳들이나 가끔은 학교에서 1~3시간 가량 떨어진 곳들을 방문 하였습니다.</p> <p>대학 근처는 주로 자연 경관을 많이 볼 수 있는 곳들이고 조금 걸어야 하기 때문에 편한 복장이 필요했고, 햇빛이 뜨거워서 타지 않기 위해서는 얇은 긴 옷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. 추가 비용은 거의 점심을 준비해주시지만 간단히 사 먹을 돈, 박물관 비용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에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에 수영복이 필요했습니다.</p> <p>또 샌프란시스코에 갈 때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두꺼운 옷이 필요했습니다. 이곳에 갈 때는 개인적으로 쇼핑 등에 사용할 돈 이외에는 추가 비용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당일로 갔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차 안에서는 편한 복장이나 간단한 간식 정도를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</p>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햇빛이 뜨겁지만 습하지 않아서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더운 만큼 실내에 에어컨이 많이 켜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긴 옷을 입을 일이 많았습니다.</p>
안전	<p>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, 학교 내에서도 기숙사를 관리 하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했습니다.</p> <p>기숙사 출입도 카드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고, 방문도 열쇠가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.</p>
숙소	<p>기숙사 시설은 전반적으로 좋았고 에어컨이 춥다고 느낄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. 샤워실은 공용이고 조금 좁기 때문에 이 점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.</p> <p>그리고 방음이 되지 않아서 조금 주의가 필요했고, 8시 이후에는 기숙사에 있어야 되어서 편하게 쉴 수 있었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</p>

식사	학교식당 (○) 외부식당 () 기타 () 학교 식당에서 아침, 점심, 저녁을 제공해주는데 수업이 없는 날은 학교 식당에서 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전 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, 원할 때 외부 식당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.
교통	시내 버스가 1 시간에 1대씩 있고, 막차도 굉장히 일찍 끊기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용하지는 못했습니다. 다 같이 나갈 경우에는 택시를 타기도 했고, 교수님들께서 한번씩 태워주시기도 합니다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지출 금액과 현지에서 추가 지출한 총 지출내역을 써 주세요.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왕복 항공료	1,560,300	국내 납부
보험료	16,750	국내 납부
현지 교통비	11,800	
식사	87,700	
쇼핑 및 기타	277,000	
합계	1,953,55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장거리 비행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,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은 미리 간단한 한식을 챙겨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
그리고 현지 날씨가 서늘한 날들도 있기 때문에 긴 옷을 준비해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, 특히 교수님들께서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더욱 좋았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. 또 학교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하지만 항공사 서비스가 불친절했던 점과 경유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. 학생들 모두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기를 원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. 3주 동안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었고,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,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어서 좋았고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		
<p>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</p>		<p>학교에서 발표 시간</p>
		
<p>기숙사 근처 풍경</p>		<p>독립기념일</p>



친구 집에서 파티



수업 수료증